



토론토대학의 교수지원혁신센터를 가다

2018 QS 세계대학 랭킹을 기준으로 서울대학교(36위)보다 상위에 있는 캐나다 소재 두 개의 대학 중 하나인 토론토대학(University of Toronto, 31위)은 1827년 설립된 연구 중심 공립대학으로, 토론토와 인근 도시인 미시소거(Mississauga), 스카버러(Scarborough)의 3개 캠퍼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토론토대학은 문학평론과 통신이론 분야에 획을 그은 토론토 학파(Toronto School), 인슐린·줄기세포 연구와 멀티터치 기술 및 NP-complete 개념의 발상지, 그리고 캐나다 최대 규모이자 북미에서 하버드와 예일 다음으로 많은 1,200백만 권 이상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44개의 도서관 시스템으로 유명하다.

● ● ●
김 선 영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이러닝콘텐츠개발부 연구교수



토론토대학의 ‘교수지원혁신센터(Centre for Teaching Support & Innovation, CTSI)’는 바로 44개의 도서관 중 중앙 도서관인 로바츠 도서관(Robarts Library) 4층에 위치하고 있다. 센터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CTSI는 주로 교수, 시간강사 및 수업조교의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학생들의 학습 지원은 ‘학문적 성공, 학생 성공 센터(Academic Success, Student Success Centre)’라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CTSI가 토론토대학 세 캠퍼스의 교수자 및 수업조교를 모두 지원하지만,

스카버러캠퍼스는 우리나라의 교수학습센터와 유사한 형태로 ‘교수학습센터(The Centre for Teaching and Learning)’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시소거캠퍼스의 경우 교수 지원은 토론토캠퍼스의 CTSI를 이용하고, ‘로버트 길레스피 학문기술센터(Robert Gillespie Academic Skills Center)’라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 학생 및 조교를 지원하고 있다.

CTSI의 운영 체제 및 방식은 크게 교수지원, 교육공학, 교수법 연구, 그리고 교육상으로 구분된다. 교수지원은 우리 센터의 교육지원부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및 업무, 교육공학은 우리 센터의 이러닝콘텐츠개발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수법 연구와 교육상은 교육과 관련된 장학금과 상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 또는 강좌 등의 교육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동일하게 진행되는 이벤트 방식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에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및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교수지원과 교육공학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먼저, 교수지원에서는 교수자 멘토링, 효과적인 교수 연습을 위한 동료 관찰, 교육과정 수정 안내, 컨설팅, 교수 문서화, 교수전략, 강좌 설계, 대학교육의 핵심, 형성적 피드백 수집, 강좌 평가, 교수자를 위한 온라인 학습 모듈, 능동학습 및 적응적 교수 기법, 대학원생과 함께 일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수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이색적인 프로그램은 바로 ‘대학교육의 핵심(Fundamentals of University Teaching)’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수자의 교수법을 향상시키고 교수와 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 따라 한 주에 두 시간씩 총 8주 동안 진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 학습자인 교수자는 여러 가지 학습모델과 이 모델을 수업에 사용하는 방법, 학습목표를 구성·사용하는 방법, 강좌 설계의 기본, 서로 다른 교실 환경에서 효과적인 교수를 위한 전략 및 교수법, 다양한 평가 방법의 장점 및 단점, 교수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학습시간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교직과정 중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의 50~65% 정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집중해서 이루어지는 특강 형태보다는 매주 만나는 강좌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단기 집중형 특강보다 중기 분산형 강좌 형태를 취하는 경우, 대상 학습자인 교수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교수법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강의 듣기뿐만 아니라 과제, 토론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학원생과 함께 일하기를 통하여 대학원생과 관련된 분야 역시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교수를 대상으로 교육, 안내 및 표창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수자 입장에서 수업조교인 대학원생을 어떻게 지도·관리하



여 효과적으로 수업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함께, 대학원생 입장에서 수업조교 또는 강사로서 어떻게 수업을 지원 또는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업조교 훈련 프로그램(Teaching Assistants Training Program, TATP)’이라는 별도의 유·무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워크숍, 인증 프로그램, 신규 조교 훈련, 교육키트 제공, 우수 수업조교 및 강사 표창 등을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더 나아가 일부 학과에서는 수업조교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유급의무교육의 일환으로 TATP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대학원생과 연관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센터에서는 예비교수자 또는 강사로서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예비교수자 양성과정을, 조교 대상으로 eTL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조교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교수자 또는 대학 운영자는 수업조교를 어떻게 지도·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수업조교는 어떻게 수업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교육공학은 온라인 학습과 기술에 대한 교육 방법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분야로 온라인 학습, 교수와 기술, 그리고 강좌 및 강의의 오디오·비디오 녹화로 구성된다. 우리 센터가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관련 데이터를 개발, 운영, 지원하는데 비해, CTISI의 경우에는 관련된 자료를 안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실제 기술 및 인프라와 관련된 업무는 대학 내 타 기관인 학문적·협력적 기술(Academic & Collaborative Technology, ACT)과 정보·기술 서비스(Information+Technology Services)가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학습관리시스템 사용에 대한 안내에 그치지 않고, 교수자가 온라인 교육을 계획, 설계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는 점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론토 도심의 도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낮은 높이의 건물로 이루어진 토론토대학의 외형 때문에 배낭을 맨 학생들이 없었다면 어디가 대학 내이고, 어디가 대학 외인지 인식하기 어려웠다. 대학 전체 외형과 같이 CTISI 역시 넓지 않은 도서관 한 층의 1/4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일반 강의실과 PC 실습용 강의실 총 2개의 강의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이지만 그보다 작은 도시인 밴쿠버와 몬트리올에서도 개최한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는다는 토론토. 이러한 토론토를 닮아 소박한 듯 보이지만 강단 있는 토론토대학과 CTISI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후배에게 전하는 나의 글쓰기

● ● ●
이 내 경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학부생

제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가르침과 배움> 웹진에 이 글을 실을 수 있어 기쁘고 영광스러우면서도 과분한 마음이 듭니다. 스스로 좋은 필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서울대학교 내에 저보다 글을 잘 쓰시는 학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가진 후배들에게, 특히 2018년 대학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신입생들에게 저의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고 제안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는 태도에 대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모범이라기 보다는 한 갈래의 선택지로 생각하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적 글쓰기와 “진솔함”

학부에서 4년간 리포트를 쓰면서 저는 “진솔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글 속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대개의 리포트가 학술적 글쓰기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주로 감정을 나타내는 글을 평가할 때 쓰이는 진솔함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학술적 글쓰기에 문학작품과는 다른 특유의 진솔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의 느낌이 행간에 진하고 솔직하게 스미는 것에서 편지나 수필의 진솔함이 비롯된다면,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문제의식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성실한 고찰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고 웃는 존재로서의 “나”라기보다 탐구자로서의 “나”가 갖는 근면이 학술적 글쓰기에서 진솔함의 토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수님들로부터, 글을 쓸 때만큼은 열정만이라도 학계에 기여하려는 학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갖는다면, 비록 저도,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후배 여러분도 한 명의 학부생에 불과하지만, 뻔한 내용을 그럴듯하게 꾸미어 썼다고 느껴지는 글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학술적 글쓰기에 있어 진솔함